

배포일시	2019. 11. 19.(화) 15:00 (총 3매)	보도시점	2019. 11. 19.(화) 17:00		
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실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송 병 현 김 은 숙	전화번호 02-2181-0380 02-2181-0383

한국과 영국, 미래 기상기술 협력 강화하기로

- 한·영 기상협력회의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11월 19일(화) 양국 간 기상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‘한·영 기상협력회의’를 개최했다.
 - 기상청은 2012년 영국기상청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이후, 영국 통합예보모델(UM*) 및 예보관 교육훈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, 공식적인 협력회의는 처음 마련되었다.

* Unified Model (통합예보모델)
- 이번 회의에서는 △수치예보모델 △영향예보 △천리안위성 2A 활용 기술 △계절예측·기후변화 분석 연구 △기상항공기 운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.
 - 특히, 한국형수치예보모델(KIM)의 2020년 현업화에 대비하여, 양국의 수치예보모델 개발 현황 및 앞으로 발전 방향을 고려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 - 또한, 지난해 한국에서 발사한 천리안 위성 2A호 자료의 수치예보 활용 및 저궤도 기상위성 개발에 대비한 기상위성 자료처리 소프트웨어(sw) 개발·운영 기술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.

- 이번 회의를 통해 △수치예보모델 △영향예보 △예보관 교육훈련 △계절예측·기후변화 분석 공동연구 △기상항공기 운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한-영 기상협력회의가 앞으로 양국의 기상 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것입니다.”라며, “영국과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, 세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여 기상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: 한-영 기상협력회의 사진

붙임 1 한·영 기상협력회의 사진



| 페니 앤더스비(Mrs Penny Endersby) 영국기상청장(왼쪽)과 이야기를 나누는 김종석 기상청장(오른쪽) |



|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종석 기상청장(오른쪽)과 페니 앤더스비(Mrs Penny Endersby) 영국기상청장(왼쪽) |